

광주FC '악몽의 홈 개막전'

엄지성 선제골 무효에 퇴장까지
홈구장 최다관중 기록했지만
서울에 0-2로 패하며 빛 바래
이정호 감독 "납득 안 가는 패배"
K리그2 전남, 안방서 0-5 대패



광주FC의 산드로(가운데)가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1 2라운드 경기이자 홈 개막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가 2023시즌 개막전에서 광주축구전용구장 최다관중 기록을 작성했지만 승리의 만세 삼창은 하지 못했다.

광주가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라운드 경기이자 홈 개막전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엄지성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무효골'로 아쉬움을 삼켰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악몽의 하루를 보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엄지성이 왼쪽에서 침투해 첫 슈팅을 시도했다

전반 7분 엄지성이 재치있는 플레이로 코너킥을 만들어 냈다. 오른쪽에서 두현석이 키커로 나섰고 엄지성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 최철원 품에 안겼다.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아사니의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막혔다.

광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아사니에 이어 정호연으로 연결된 패스, 산드로의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광주가 서울을 압박했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사니가 공을 띄웠고 엄지성의 헤더가 연결됐지만 바운드가 된 공이 골키퍼에 걸렸다.

전반 27분 모처럼 서울의 공세가 전개됐다. 프리킥 상황에서 기성용이 공을 띄운 뒤 오스마르의 헤더가 골대를 비껴나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엄지성이 전반 40분 경기장을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게 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이 그대로 상대 진영까지 진입했다. 세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여있던 엄지성이 마지막 방어를 뚫고 슈팅을 날렸고, 서울 골망이 흔들렸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디오 판독 끝에 공격자 파울이 선언되면서 엄지성의 시즌 첫 골이 사라졌다. 엄지성이 공을 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서 있던 산드로가 김주성과 충돌했고 산드로의 파울이 선언됐다.

광주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0-0으로 끝난 전반

전. 서울이 후반 시작과 함께 대거 선수를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안익수 감독이 나상호, 팔로세비치, 일류첸코를 동시에 빼고 윌리안, 한찬희, 박동진을 투입했다.

후반에도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됐지만 후반 10분 퇴장 악재가 발생했다. 후반 9분 경고를 받았던 엄지성이 김진야의 팔을 뺏기 위해 태클을 하다가 다시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됐다. 수적 열세 속에 광주의 후반전이 전개됐고, 후반 13분 오스마르의 헤더에 광주 골대가 뚫렸다.

후반 16분 이정호 감독이 아사니와 이희균을 대신해 토마스과 하승운을 투입했다. 분위기를 바꾼 광주가 후반 25분 공격을 전개했다. 산드로가 문전에서 시도한 헤더가 살짝 골대를 벗어나면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후반 막판 토마스가 공세적으로 나섰고, 상대 진영에서 김주성에게 밀려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 45분 서울 박동진의 헤더가 골키퍼 김경민을 지나 골망을 흔들었다.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반격에 실패한 광주는 0-2패를 기록했다.

경기가 끝난 뒤 광주 이정호 감독은 "아쉬운 것보다는 분하다"며 패배를 이야기했다.

그는 "결과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내 잘못이지만 선수들은 그만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광

주색을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인 것 같다. 경기는 졌지만 경기력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이겼다"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광주라는 색을 가지고 있는 팀이 결과도 가져와야 할 것 같다. 납득이 안 가는 패배여서 많이 분하다. 지금까지 오늘 했던 축구 그대로 상대가 누가 됐든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7357명이 입장하면서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이후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0-5 대패와 함께 연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5일 경남FC를 상대로 한 2라운드 경기에서 무려 5실점을 하면서 지난 1일 개막전에서 이어 다시 패했다.

전남이 전반 15분 선제골을 내줬다. 이강희의 중거리 슈팅을 골키퍼 김다솔이 막아냈지만 흐른 공을 잡은 원기종의 오른발이 전남 골대를 갈랐다. 후반 15분 원기종이 이번에는 카스트로가 찰러준 공을 잡아 왼발로 멀티골을 장식했다.

경남의 공세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후반 20분 글레이슨, 후반 27분 박재환, 후반 33분 카스트로까지 골맛을 보면서 전남은 안방에서 0-5 대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회만 8실점...KIA 연습경기서 삼성에 역전패

KIA 타이거즈가 오기나와 캠프 세 번째 연습경기에서 역전패를 기록했다.

KIA가 5일 오기나와 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 8실점을 하면서 7-11패를 기록했다.

KIA가 1회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톱타자 김도영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고종욱의 몸에 맞는 볼이 나왔다. 소크라테스가 땅볼로 물러났지만 최형우의 볼넷으로 베이스가 가득했고,

김석환의 중견수 플라이 때 3루에 있던 김도영이 홈에 들어왔다. 3회 김도영과 소크라테스의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3루, 이번에는 최형우가 우익수 방면으로 공을 보내 득점을 보냈다.

하지만 메디나가 3회까지 마운드를 지켰고 두 번째 투수로 나온 김기훈이 4회를 깔끔하게 막았지만 5회 선두타자 이상규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송민규는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다. 곧바로 이해승의 좌전안타로 무사 만루, 김재상의 희생플

라이로 1실점 했다. 김현준의 우전 안타가 이어진 뒤 김현준의 희생플라이까지 나오면서 2-3 역전을 허용했다. 6회 3-3을 만든 KIA가 7회 이후의 스리런 등을 앞세워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하지만 7-3으로 앞선 9회 KIA가 대거 8실점을 했다. 전상현이 4피안타 2볼넷으로 흔들렸고, 무사 만루에서 나온 유승철도 1피안타 2볼넷을 내주면서 경기는 7-11 패로 끝났다.

지난 1일 삼성, 3일 롯데와의 연습경기에 이어 다시 삼성을 상대한 KIA는 6일 한화전을 통해 캠프 연습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패행진 멈춘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삼척시청에 18-23...시즌 첫 패배
리그 1위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2라운드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18-23(10-13, 8-10)으로 졌다. 11승 2무 1패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11승 1

무 2패가 된 삼척시청에 승점 1점차로 쫓기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주포 강경민이 6골, 6도움으로 분전했으나 개막 후 무패 행진이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중단됐다. 강경민은 리그 통산 300여시스트를 달성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종료를 앞두고 송해수와 강경민의 득점으로 10-13, 3점 차로 전반전을 마

쳤다.

후반 9분 김지현과 김금순의 연속 득점으로 14-14 동점을 만든 광주도시공사는 삼척시청 골키퍼 박미라의 선방에 막혀 골루트를 뚫지 못했다.

후반 25분에는 16-22로 승기를 빼앗겼다.

리그 1,2위인 두 팀은 지난해부터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나 삼척시청에 패했다. 올해 1라운드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30-27로 승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 '살아났네'

부상 고진 속 1년 만에 LPGA 우승...HSBC 월드챔피언십 2연패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고진영은 5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파72·67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지난해 이 대회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5000만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목 부상으로 고진영은 지난해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전연지(29) 이후 19번째 대회만이다.

고진영과 한 조에서 경기한 넬리 코다(미국)가 15언더파 273타, 고진영에 2타 뒤진 2위에 올랐다.

올해 세 번째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투어 통산 14승째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전연지(29) 이후 19번째 대회만이다.

고진영과 한 조에서 경기한 넬리 코다(미국)가 15언더파 273타, 고진영에 2타 뒤진 2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를 달린 고진영은 이날 전반 9개 홀에서 버디만 3개 기록하며 순항했다.

2위에 3타 앞선 10번 홀(파4)에서 세 번째 샷이 그린 주위에 놓이는 위기였으나 그린 밖에서 시도한 중거리 퍼트를 넣고 파를 지켰다.

그러나 이어진 11번 홀(파4)에서 이날 유일한 보기가 나왔고, 2위에서 추격하던 교포 선수 대니얼 강(미국)이 13번 홀(파5) 버디를 잡아 1타 차로 간격을 좁혀졌다.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 /연합뉴스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고진영은 13번 홀에서 약 4m 이상의 중거리 버디 퍼트를 떨구고 다시 2타 차로 달아났고, 대니얼 강이 16번 홀(파5)에서 타수를 잃으면서 공동 2위권과 격차가 다시 3타가 됐다.

3타 차로 비교적 넉넉하게 앞선 가운데 마지막 18번 홀(파4)에 들어선 고진영은 18번 홀 그린으로 향하면서 수건으로 축축해진 눈가를 닦을 정도로 일찌감치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 대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 선수들이 우승했다.

김효주(28)가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8위에 올랐고, 현재 세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5언더파 283타로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살아있네'

일본여자프로골프 2023시즌 개막전 우승...프로 통산 63승

신지애(35)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5일 일본 오기나와 류큐 골프클럽(파72·6560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제36회 다이킨 오키타 레이디스 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기록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3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160만엔(약 2억원)이다.

신지애가 J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7월 다이토겐타리 레이디스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신지애는 JLPGA 투어에서 통산 29승째를 거뒀다.

이는 JLPGA 회원이 되기 전인 2008년 요코하마 타이거 PRGR 레이디스컵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공동 주관한 미즈노 클래식 2승을 더한 횟수다.

올해 2월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빅토리오픈에서도 우승한 신지애는 프로 통산으로는 63승을 달성했다.

신지애는 이날 경기 내내 1타 차로 따라붙던 우



신지애

에다 모모코(일본)가 마지막 18번 홀(파5) 보기를 기록하고, 신지애는 18번 홀을 버디로 장식하며 공동 2위와 격차를 3타로 벌렸다.

우에다와 이나미 모네(일본)가 나란히 7언더파 281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대외비
- 2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3관 대외비
- 4관 카운트
- 5관 서치 2
- 6관 대외비,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 9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7관 씨네커플 명몽이, 더 웨일,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8관 씨네커플 명몽이, 크리드 3, 에메이징 모리스, 리틀 엘렌: 외계인과 안테나 대소동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예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